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마 23:1-12)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예수님은 거대한 분노로 가득 차서 맹렬하고 강한 언어들 쏟아놓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13절).

예수님의 분노와 저주의 말씀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향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신앙적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들을 판단하며(1-2절) 속에는 시체 썩는 더러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가장 깨끗한 척, 겉으로는 사랑과 화평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증오와 분열을 외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조소를 금치 못하십니다.

1. 그들의 언행불일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은 참 잘하는데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 그들의 외식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5절).

예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시지만 유독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긍휼하심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내면 깊은 생각까지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3. 교만한 명예욕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윗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6-7절). 그러나 랍비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책망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언행불일치, 외식함, 교만한 명예욕 같은 위선을 버리고, 신행일치의 삶, 진실한 인격, 겸손한 언행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ose Who Sat in Moses' Seat

(Matt. 23:1-12)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esus appearance in the text is very exceptional. He was full of anger and poured out the violent with strong words.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shut the kingdom of heaven in men’s faces. You yourselves do not enter, nor will you let those enter who are trying to” (v. 13).

The words of Jesus’ anger and curse were given to the teachers of law and Pharisees. It was very surprising that Jesus was angry at those who had a good knowledge of the Bible and who had excellent enthusiasm about everything.

Despite criticizing others in the seat of Moses (vv. 1-2), and smelling dirty and rotten corpse, they outwardly pretended to be very clean and shouted love and peace but exclaimed in their heart hatred and split. That’s why Jesus could not help sneering at them.

1. The discordance between their words and deeds

One of the traits of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is that they speak well but they do not live their life as they say. Therefore Jesus said to us, “So,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But do not do what they do, for they do not practice what they preach.” Because it is God who is personal, though men deceive people, God never deceives them.

2. Their hypocrisy

“Everything they do is done for men to see: They make their phylacteries wide and the tassels on their garments long;” (v.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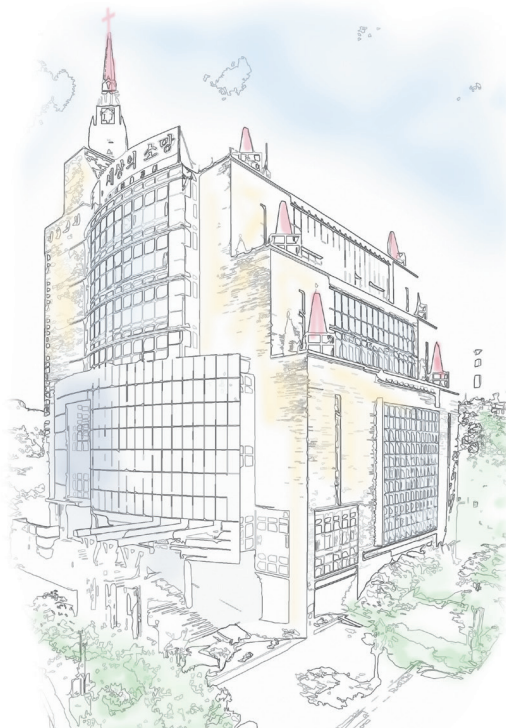
Jesus is benevolent and compassionate without limitation. But he is never compassionate for their hypocrisy. Our God looks into our inner parts with eyes like flames.

3. An arrogant desire for honor

The traits of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Pharisees mean the upper seat, or high seat of which they like to be called Rabbi by the people (vv. 6-7). However, there is only one Jesus who is Rabbi and leader.

My beloved Christians,

In the text, Jesus not only blames Jewish religious leaders but also all of us who live our life nowadays. By throwing away the discordance between the words and deeds, hypocrites, arrogant desire for honor, becoming Christians of the life in accordance with the beliefs and deeds, truthful personality with modest words and deeds, and giving glory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live our life as the light of salt in the worl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주제 :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히 9:11-12)/ 강사 : 박노철 담임목사
성금요일(4.3)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본당, 연합다락방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가 3월 30일(월)
부터 4월 4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본당에
서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
도회의 주제는 "성막
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히 9:11-12)으
로서 히브리서 9장을
강해할 것인데, 구약의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조
명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셨는지를 묵상한다. 사
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인 고난주간을 맞이하
여 열리는 특별새벽기
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
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성금요일에는 해 있
는 동안 금식하며 금요기도회는 연합다락방으로 오
후 8시부터 본당에서 모인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부활절 새벽예배 : 4.5(주) 새벽 5:00 /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 찬양대 부활절 절기찬양 / 순결 서약식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
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
의 삶과 피를 기념하기 위
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부
활절 감사헌금과 금식헌
금을 드린다. 성찬은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
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한편 "주를 향해 자기
를 깨끗하게"(요일3:3)라
는 주제로 거행되는 2015
년 순결서약식이 찬양예
배 시에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4월 5
일(주일) 오후 4시 본당에
서 있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대장:
오광환 장로)가 부활절 칸타타 『십자가 위에』로 하
나님께 영광 돌린다.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 4월 4일(토) 오전 9시

우리교회 스테반회 주관으로 봄맞이 지하주차장
대청소를 한다. 겨우내 차량에 묻어 들어온 흙먼지와
염화칼슘으로 더러워진 지하 주차장 바닥을 물로 닦
아내며 각종 오물을 청소한다. 성도들은 가급적 차량
을 이동하여 원활한 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란다.
스테반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순결서약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옥유진 김은빈 신지호 천예준 김재령 문예원 유선화
김유진 남사라 이수민 김주연 최세용 배규미 민희성
이선우 정서현 김소람 서 윤 유병훈 김 휘 송채원

영동시찰회

3월 31일(화) 오전 11시, 묘동교회

강남노회 영동시찰회가 3월 31일(화) 오전 11시
묘동교회(이요한 목사시무)에서 열린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63)

(문 163)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예수께서 산헤드린에서 선고받으실 때 유다가 직접 그 광경을 목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실을 후회하기 시작한 것은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때 끌려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처럼 그에게도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께 이런 결과가 발생할리라는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다로서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배신행위에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가장 괴롭힌 것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을 돌려주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므로 개정중인 그 공회 앞에 나아갔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만났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산헤드린의 그 괴심한 짓에 자신이 연루된 것에 대한 후회와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그 돈을 돌려줄 때 한 말은 종교적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이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위를 실토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의 양심가책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그와는 무관하다는 듯이 냉소적이었습니다.

유다가 성전에 그 돈을 던진 일에 대하여는 해석이 구구합니다. 아마도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이는 회집소를 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으나 유다가 그 돈을 성전 고에 넣지 말도록 대제사장들이 말한 것으로 보아 그는 성전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 목에 올가미를 매고 밧줄의 다른 끝을 나뭇가지에 맨 후 거기서 뛰어 내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120명 문도 앞에서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설명한 바에 의하면 그는 "불의한 삯으로 밧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하였습니다.(행1:8)

(다음 주 계속)

2015 하계 비전트립팀 팀원 모집

사역지 : 인도 나가나할리 교회
일시 : 8월 1일 ~ 8월 8일까지
지도 : 서준권 목사, 단장 : 박종권 집사
마감 : 3월 29일, 사무국으로

나눔의 집

봄이 되니 나눔의 집에 성도들의 발길은 빈번한데 상품의 구색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우리집 베란다에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이 놓여있거나, 혹은 2년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 옷장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눔의 집으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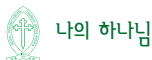




종려주일 Palm Sunday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환영을 받은 사건(마 21:1-11, 막 11:1-10, 눅 19:28-40, 요 12:12-19)을 기념하는 날로서, 날짜는 해마다 다릅니다. 올해는 3월 29일이 종려주일이며, 이 날부터 7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palm)는 '의',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하며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무리들이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주일이 종려주일과 관련되기 이전에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지원자주일(Dominica Competentium)'이라고 불렀는데, 이 명칭은 부활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세례지원자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세례지원자들은 이 주일에 처음으로 기독교 신조와 주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날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정결하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첫 월급을 첫 예물로 드립니다



지윤준 성도

2015년 호산나대학 지윤준(6회) 졸업생이 자신의 첫 월급 전액을 호산나대학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기부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호산나대학을 입학한 지윤준 군은 2015년 2월 13일 강남구립행복요양원에 최종 합격해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윤준 군은 서울교회 청년부에 활동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학생입니다.

특히,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에서 실습을 하면서 받은 첫 실습비 15만원을 서울교회에 전액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직장내에서도 항상 웃으며 알아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칭찬이 자자합니다.

지윤준 군은 장학금을 기부하며 앞으로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멋진 직장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호산나대학은 지윤준 군의 장학금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며, 지윤준군이 앞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에 호산나대학을 졸업한 지윤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교생활이 힘들었던 저는 처음으로 힘들지 않고 기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호산나대학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은 저에게 직업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잘 가르쳐 주셨고 저는 직업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서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도서관, 평생돌봄, 굿윌스토어에서 실습을 하면서 직장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게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헤어지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는 학장님상을 받게 되었고 서명철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저의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선물로 직장을 선물 받아서 졸업식 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게 된 것입니다.

강남구립행복요양원이라는 곳인데 새로 생겨서 아주 크고 깨끗합니다. 간호부 소속이라서 임상병리실, 약국 등을 다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을 존중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서 멋진 직장인이 되겠습니다.

호산나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교회에 다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가 늘 힘이 되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디아스포라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고 청년부 모임도 즐겁습니다.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 평생돌봄에서 받은 첫 실습비를 모두 첫 예물로 서울교회에 드려서 참 기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저속도 하고 부모님께 받았는 것도 사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졸업생 지윤준 올림

사순절의 기도 - 부활절 공모시 수상작

나귀 타신 왕께 호산나

이강진 장로 (1교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고개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임하시어라

찬양할지어다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돌들이 찬양하라
젖먹이들이 송축하라
호흡있는 만물들이
그 이름을 높일지어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가
나귀 타고 겸비하게 오시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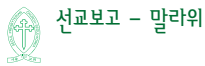
너희 죄인들이여
맛이할지어다
영원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영접할지어다

다윗의 언약이 기억되고
전능자의 지혜가 드러나며
만세전의 베일이 걷혔나니
만인 대속의 신비에 참여할지어다

더러워진 땅이 속죄되고
부패한 심령이 정결해지며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리니
너희 성전을 청결하게 할지어다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머리 숙여 경배하나이다
오셔서 성결과 의를 이루소서

만왕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음드려 찬양하나이다
오셔서 빛과 진리로 다스리소서



말라위에서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동역자 여러분께 멀리 말라위에서 사랑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년 내 기다리던 우기철이 되었습니다. 파종하기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처음에는 초조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기도 했습니다만 주의 은혜로 예쁜 새싹이 흙을 뚫고 올라와 잘 자라고 있습니다.

1) 양곡 구호사업

마칸디 지역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가정과 장애우들을 골라서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안희주 권사님의 활동이 눈물겹도록 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청년 하나를 대동하고 주로 날이 저문 후에 몰래 한 가정 또 한 가정을 방문하여 25킬로그램의 옥수수를 전달하시고는 지친 몸을 끌고 울면서 스텝하우스에 들어오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 목격하게 되는 가난의 비참함이 이토록 처절한 것인지 미처 몰랐다고 하시며 그냥 우실 따름이고 이튿날 늦은 오후에 픽업트럭에 또다시 옥수수 자루를 가득 싣고 다른 마을로 다니시고 계십니다.

2) 물지게 보급사업

마칸디 지저스 진료소를 찾는 환자의 대부분은 중년 및 노인 여성분들이고 이들은 한결같이 목과 허리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매일 매일 두 세차례씩 자기 체중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무거운 물통을 머리에 이고 공동 우물로부터 먼 길을 힘겹게 걷다보니 각종 근육통이나 디스크에 걸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진료소를 찾는 이들에게 고작 진통제 몇알을 나눠줄 따름이었는데 2013년부터 한의사이신 이윤희 선교사님께서 이들에게 짐을 놓아주니 얼마나 많은 여성들



이 짐을 갖기 위해 새벽부터 장사진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해들어 실험적으로 한국식 물지게를 도입하여 보급하고자 합니다. 말라위의 문화는 남자가 머리에 물통을 지고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땀뻘을 어깨에 메고 물통을 나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도 지게로 더 쉽게 물을 나를 수 있고 심지어 남자도 물을 길어 올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3) 고등학교 건축

지난 23일에는 마칸디 초등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칸디 초등학교 출신 가운데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진학했거나 심지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 여자 졸업생들이 모교를 찾아 주로 여학생들에게 자기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할 것을 당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톰보시 추장은 송아지까지 한마리 기증해서 이 뜻 깊은 행사에 참석한 재학생과 졸업생 및 내빈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 내내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세워져야 할 필요성이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에 인근 지역에 교원대학교가 하나 생겼고 거기에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중국 정부가 지은 4년제 기술 종합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이런 대학교들과 초등학교 사이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를 끝까지 마칠 동기를 부여하는 면에서도 문제라고 생각해 온 터였습니다. 제가 인사말을 해야 할 순서가 되었을 때 두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 제 기도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 편지를 쓰면서도 이곳에 좋은 기숙사형 미션 고등학교가 생기도록 기도에 힘써 주실 분을 그립니다.

이루어주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했으니 제 기도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 편지를 쓰면서도 이곳에 좋은 기숙사형 미션 고등학교가 생기도록 기도에 힘써 주실 분을 그립니다.

말라위에서 김용진 올림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은빛찬양대(대장:이관규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박래경 집사의 지휘로 “주 찬양하라 (Walter A.Shawke 곡)”,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홍정표 역)”,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를 찬양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홍해란 집사, 팀파니스트 윤주일 집사와 임혜원 성도가 풀무트로 협연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30일(월) 연세대신과대학장 및 연합신학대학원장 취임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31일(화) 새로운한국을 위한국민운동 정직한 기업만들기 세미나 개최설교한다.

4월1일(수) 국민운동상임대표회의에 참석한다.

4일(토) 사랑의쌀운동, 몽골울란바타르국제대학 이사회 개최설교한다.

■ 발령 : 1교구 오병호 집사(양세정 집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과장 (오현상집사 김명옥권사 아들, 양춘경장로 이인숙권사 사위)

■ 주일식당봉사 : 엘리아 선교회(3.29) 모세 선교회(4.5)

■ 금주의 식사 제공 : 호산나 학교 학부모회 일동 (범사에 감사드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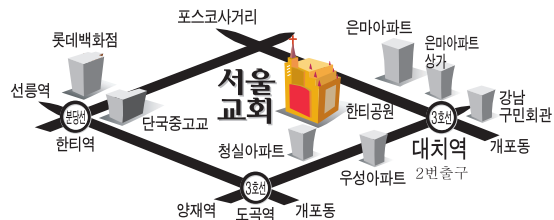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2.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3.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성찬을 받고 순결서약에 임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 당 II, III, IV 층 |
| |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웨스트민스터 홀 |
| | 젊은이 예 배 | 오후 1시 30분 |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본 당 II, III 층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